

러시아의 상징 - 크렘린궁



크렘린궁전 상트바실리 대성당

최 석 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i@cerik.re.kr

최 근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미션 임파서블 4'에서 나오는 크렘린(Kremlin)궁전의 폭발신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크렘린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 구(舊)소련의 상징이었던 크렘린은 공산주의 붕괴 이후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크렘린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 셈이다.

12세기 중반에 최초 축성

크렘린궁전과 붉은 광장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

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성채 또는 성벽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라고 한다. 하지만 대문자로 시작할 때는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전을 의미한다.

크렘린궁전은 과거 러시아 황제의 궁이자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였으나,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군주제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최근까지는 구소련의 정부 청사로 활용되었다. 궁전의 주요 개요는 면적 24헥타르, 성벽 길이 2,235미터, 높이 8~19미터, 탑의 수 20개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크렘린의 터는 기원전 2,000년부터 사람이 살았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72

던 곳으로, 12세기 모스크바강과 네그린나야강의 합류점인 보로비츠키 언덕 위에 방어 시설로 세워진 조그마한 목조 성채가 크렘린의 시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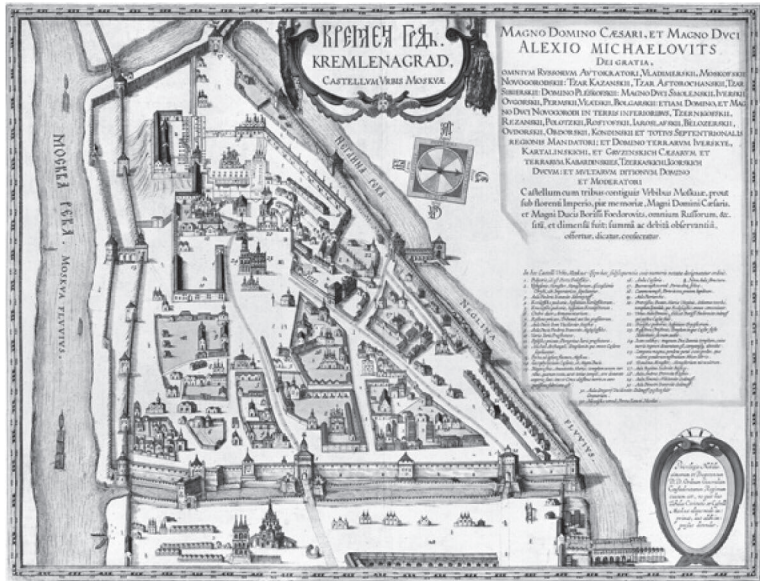
크렘린은 1156년 처음 축성되었는데 최초의 규모는 지금의 1/10 정도 수준이었다. 지금의 크렘린은 이반 3세(Ivan III, 1440~1505) 때부터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크렘린궁전의 성벽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성벽은 이반 3세에 의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반 3세는 이탈리아 건축가를 고용하여 성벽을 길이 2,235미터, 두께 3.5~6.5미터, 높이 8~19미터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제비꼬리 모양의 독특한 이탈리아식 총안(총구멍)을 도입해 방어 기능이 주었던 요새를 왕조의 중요한 근거지로 바꾸었다. 이후 크렘린은 이민족에 의해 약탈되고 파괴되었지만, 계속해서 증축되고 보수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5세기 말 솔라리가 쇄신

크렘린의 대표적인 탑 20개 가운데 가장 정교한 것은 성채의 각 모퉁이와 주요 입구에 있는 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것은 프롤로프 탑(나중에는 스파스키 탑, 구세주 탑)인데, 이 탑은 1464~1466년에 바실리 에르몰린이 처음 세웠으



크렘린의 첫 번째 세부 지도(1601년).

나, 1490년에 밀라노에서 모스크바로 온 피에트로 안토니오 솔라리가 1491년에 재건했다.

크렘린의 탑들이 대체로 밀라노의 요새와 비슷한 이유는 바로 이탈리아 건축가들이 관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특히, 솔라리는 크렘린을 쇄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네 개의 입구 탑인 보로비츠키 탑, 콘스탄틴과 헬렌 탑, 프롤로프 탑, 니콜스키 탑과 구석의 웅장한 병기고 탑, 붉은 광장에 면한 크렘린 성벽과 다면 궁전 등을 완성시키는 데도 관여했다.

크렘린궁전에서 가장 멋진 건축물은 러시아 정교회 사원들이다. 여기에는 모스크바 총주교의 무덤이 있으며,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우스펜스키 성당, 황실 무덤이 있는 아르헹겔리츠키 성당, 황실 예배당으로 쓰인 블라고베르첸스키 사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반 대제의 종루는 크렘린궁전에서 가장



크렘린궁전 전경.

오래된 건축물로 무게가 무려 210톤이나 되는 황제종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무계획의 부조화가 멋진 도시’ 창조

제국시대를 거쳐 옛 소련시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청사로 이용되었는데 이때 관청 공간 확보를 이유로 몇몇 기념물들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렘린은 스탈린 사후에 다시 개방되었다.

독일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1881~1942)는 크렘린을 “이 세상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무계획적으

로 편익에 따라 그때그때 지어졌으므로 서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바로 이 부조화가 이 도시를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멋진 도시로 만들어 놓았다”¹⁾고 평하였다.

시대와 정치적 변화에 따라 크렘린궁은 물리적 모습이나 쓰임에 있어서 매우 다이내믹한 세월을 보냈으며, 아픔의 시절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건축물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수려한 외관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오랜 세월 경험한 다양한 역사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일 듯싶다. 크렘린궁 역시 우수에 젖은 러시아의 굴곡 있는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기엔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CERIK

1) 이종호, [세계 불가사의의 여행], 북카라반, 2007, p300